

## 물기 빠진 초록, 서사 없는 장면

[환상적인 부수물] PT&Critic: 2016 Reunion 변상환 한황수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2018.03.10-03.30

안소연  
미술비평가

변상환과 한황수의 2인전으로 기획된 “PT&Critic Reunion” 전시 제목은 《환상적인 부수물》이다. 변상환은 2016년에 윌링앤딜링에서 《단단하고 청결한 용기》라는 제목의 전시를 열었고, 한황수도 같은 해에 여기에서 개인전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을 열었다. 각각의 전시는 두 사람에게 “첫 개인전”이었고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지났다. 변상환과 한황수는 《환상적인 부수물》에서, 첫 개인전 이후 지금까지 그들의 작업에 서서히 축적되어 온 것들과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변형된 일련의 크고 작은 변화들을 짚어 본다.

먼저, 변상환은 녹색 방수우레탄을 이용한 평면작업과 플로랄폼에 방수우레탄을 덮은 특유의 입체작업을 함께 전시했다. 그리고 적색 방청페인트를 써서 아주 매력적인 평면의 추상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돌아보면, 《단단하고 청결한 용기》에서 사물을 매개로 형태와 색채에 대한 변상환의 농담 섞인 무모한 도전은 알 듯 말 듯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가볍고 손상되기 쉬운 친수성 물질인 플로랄폼을 재료 삼아, 특정 사물을 참조한 일련의 형태를 조각했고 그 표면을 일제히 녹색 방수우레탄으로 칠했다. 이 과정에서 변상환은 “단단한 형태들” 위로 미끄러지는 일종의 말장난을 시도했는데, 이는 “사물”과 “조각”의 경계를 미묘하게 비틀면서 발생하는 의미의 새로운 파생-사물을 단일한 윤곽을 가진 조각적 형태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의미 발생-이거나 미지의 대상에 대한 감각의 혼란을 뚜렷하게 환기시키는 일이었다. 이를테면, 변상환은 플로랄폼을 이어 붙여 큰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을 깎아 추상적인 형태를 끌어냈다. 그는 방수우레탄을 칠한 이 커다랗고 추상적인 조각에 <용기 courage>(2016)라는 제목을 달아두었는데, 사실 이 형태의 출처는 흔해빠진 플라스틱 용기(바가지)의 손잡이 끝부분이었다. 이때 갑작스런 절단과 강렬한 단색 도포가 감각을 한꺼번에 미궁으로 끌어다 놓고, 결과적으로 눈앞의 거대하고 단단한 조각품은 녹색의 추상적인 이미지로 가볍게 표류하고 만다.

한편, 변상환은 최근 <오감도>(2017-2018) 시리즈에서 조각의 부피를 없앴다. 그는 천 위에 방수우레탄을 정교하게 쌓아올리는 과정을 통해, 두께 없는 색 이미지의 굳건한 현전을 극대화했다. 그는 대표적인 국내 페인트 제조사 네 곳에서 생산하는 녹색 방수페인트로 색각검사표를 참조한 이미지를 제작했다. 녹색의 크고 작은 원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거대한 원은 미묘한 색감의 차이로 희미하게 어떤 형상들을 구축해내고 있지만, 실상 눈의 감각을 압도하는 이미지의 실체는 표류하는 녹색의 커다란 원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플로랄폼으로 확보했던 조각의 부피를 버리고/버리면서까지 남겨진 녹색 방수우레탄만으로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시도해 보려는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위태롭게 지탱시켜 놓은 플로랄폼의 실제 덩어리 보다, 그는 임의의 윤곽을 가진 형태(덩어리)의 표면 위에서 그 내부를 까맣게 잇을 정도로 위장시켜 놓는 녹색 안료의 과도한 현전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그는 완전하게

다른 녹색 방수액이 내부의 깊이(의미)를 상실한 채 평평한 표/면으로 지각되는 순간을 캐치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는 네 개의 녹색은 때때로 “사물”과 “회화”의 경계를 오가며 추상과 재현의 강한 시차(視差)를 환기시킨다. 서로 다른 채도와 크기를 가진 녹색 원으로서의 추상적인 사물과 회화적인 구성을 이루는 희미한 재현의 형상이 “같은 것”으로 존재하는 녹색 안료의 역설처럼 말이다.

다음으로, 한황수의 <나는 내게 배턴을 넘겼다 I handed the baton to me>(2018)는 세 편의 영화에서 추출한 이미지를 과도하게 중첩시켜 디지털 프린터로 출력한 결과물이다. 그는 서로 다른 영화의 서사에서 “탈출”이라는 공통의 핵심적인 키워드에 접근하여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여러 장면들을 하나하나 수집했다. 그 이미지들을 나름의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한 화면에 붙여놓은 작업의 결과물은, 서사의 핵심으로 들어가 거기서 마주한 익숙하고 진부하고 식상한 장면들을 건져 올려 비로소 서사가 빠진 분해된 장면들의 무의미한 병렬을 강조한다. 더 이상 아무 것도 아닌 것들의 집적물인, 하나이면서 다수로서의 이 이미지는 한황수 특유의 진지함과 가벼움의 극단적인 충돌을 드러낸다. 그는 세 편의 긴 영화 서사에서 발라낸 이미지들로 한껏 허세를 부리며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여줄 것처럼 펼쳐놓으면서도, 그저 표류하는 잔여물들의 퇴적인 양 빈곤한 이미지의 표피를 손으로 한없이 매만지고 있다.

그는 첫 개인전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 이후, 계속해서 이미지와 기호의 수집 행위를 함축하는 듯한 작업 태도를 보여 왔다. 한황수는 진부하고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서사 속의 장면들로부터 의외의 단서들을 찾아내 새로운 라임에 맞춰 이미지와 기호를 과장시켜 병렬한다. 그것은 다소 허세스러운 태도를 동반하지만, 그는 그 허세의 진부함마저 경계하며 서사로부터 벗겨낸 잔여물들의 어색하고 어중간한 병합을 도리어 강조한다. 어린이 만화 영화 포맷의 <I mean>(2018)에서는, 한황수의 작업이 함축하고 있는 특유의 미적 태도를 쉽게 엿볼 수 있다. 사진을 전공한 그는 작업에서 사진 작가로의 정체성 보다는 기호와 이미지를 다루는 연구자로서의 태도가 강하게 묻어난다. 그는 아마추어 같은 태도로, 기호와 이미지를 조금 어긋나게 두었을 때 발생하는 우연적인 상황을 즐기는 듯 하다. 어설픈듯 그린, 그러면서도 그럴듯한 장면들은 서사의 클리셰를 모방하며 유희하는 아마추어의 서툰 손맛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이때 한황수가 수집하여 병렬시킨 기호와 이미지들의 효과는 완결성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며 표류하는 미완의 형태를 암시한다.